

우리나라 여성 환경활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여성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해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환경문제를 본격적인 활동 주제로 채택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환경위기에 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을 통하여 쓰레기를 비롯한 제반 환경문제가 여론화 됨에 따라 지역 여성들의 환경보전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환경활동은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는 생활자로서의 주체성을 찾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동시에 전체로 보면 한국여성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여성들의 환경활동의 현황과 제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환경보전을 위한 한국여성들의 요즈음 활동은 대략 다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일부 언론사의 지속적인 캠페인의 영향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웃간의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를 위한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성공사례를 보면 주로 대도시의 아파트의 경우 동별 분리수거를 하여 생활쓰레기를 20~30%까지 감량시키는가 하면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까지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김 양 희 /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둘째,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역환경운동이 있다. 그 한 예로 강동구 명일동의 대명국민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푸르게 사는 모임’의 경우에는 지역환경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하나가 되어 환경교육, 환경행동 실천,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알뜰시장 및 환경전시관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환경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모임으로 발전시키고 매월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인 환경연구와 기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환경단체인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에서 교육을 받은 수원지역의 여성환경지도자들은(‘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수원지부’) 정기적인 모임에서 환경도서를 읽고 토론을 하거나, 동네에 파고 들어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만들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째, 80년대 후반부터 도시 주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을 들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함께하는 생활 협동조합, 부천 YMCA, 서울과 원주, 창원 등지의 한살림, 경실련 정농생협, 구로동의 녹원생협 등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거래하기 위한 소모임을 통하여 주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이 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1992),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운동은 식품오염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더 나아가 농촌을 살리고 오염된 생태계를 회복하며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는 운동으로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째, 환경전문단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90년대에 들어서서 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각종 캠페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92년도에는 리우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 YMCA, BPW(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한국여

성민우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많은 환경행사를 벌였다.

이밖에도 일회용품과 합성세제 덜 쓰기, 장바구니 들기 운동 등 개인적 실천을 강조하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성들의 환경활동은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천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몽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과연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여성에게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 몇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그동안의 여성들의 환경활동이 소비자로서 쓰레기 치우기식의 청결운동(clean movement)의 성격이 강하였던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은 미비하였다. 지역의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운동만 보아도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일이며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권을 찾기위하여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의무로서 강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정주부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어 마치 여성들이 지구의 청소만(global housekeeping) 제대로 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환경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개인의 입장에서 환경문제가 사회의 정치·경제적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한 채 우유박을 씻어말려 재생활장지 몇개와 교환해오는 일만으로 환경적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게 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여성들이 미칠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제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단체안에서도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즉, 왜 여성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입장정리를 하지못한 채 이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진보적인 여성단체일수록 환경을 주제로 택할 경우 개량주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갈

“

소비자로서 쓰레기 처리의식
 청결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던 반면,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은 미비하였다.

”

등을 느끼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환경을 활동주제로 택할 경우 그 활동이 단체의 기존이념과 목표, 활동방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째는, 여성환경운동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민간환경단체에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요즘의 환경운동은 과거와 달리 이념적 접근만으로는 일반인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환경문제를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폭넓게 접근할 것을 필요로 하는만큼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과 자질을 갖춘 환경운동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들이 왜 환경문제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전문환경운동가의 부족은 여성단체의 환경운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여성들의 환경활동의 현황과 그 제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으로 한국여성들의 환경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환경단체의 세력화, 여성환경전문가의 양성,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에의 여성참여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여성을 개별적인 소비자로 보는 현재의 시각은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앞으로는 녹색소비자운동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보다 조직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식수문제만 하더라도 생

수를 사먹고 말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보내도록 지역의 수질 및 그 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압력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환경문제를 여성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영국의 WEN(Women's Environment Network)가 전개한 녹색소비자운동을 보자. 이 단체는 흰종이 한톤을 만들 때마다 사용되는 염소표백제가 청산칼리보다도 5만배나 더 위험한 다이옥신(dioxins)을 포함한 물질(organochlorine)을 35~65kg 방출해 낸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1989년에 '표백되지 않은 종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까지 도미노효과를 가져와서 종이 생산과정에서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작용하였다(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종이제품의 90%가 비표백임).

위와 같이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여성개인의 분산된 활동에서 결집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현재 이 운동이 그나마 성공하는 지역에서는 의식과 의지를 가진 소수의 주부들이 모여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과중하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쓰레기 분리작업은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 우선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집밖에 내오기 전에 철저히 분리하도록 그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더욱 홍보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공동작업 역시 주부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쓰레기를 해당 지역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재활용품 생산공장을 각 지역에서 가동한다면 지역내 주부들의 고용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지역의 생활쓰레기 중 음식쓰레기만 모아서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비료는



역시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원예를 하는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다음은 소비자로서의 여성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전문가 및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UN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경우 식량생산의 70%가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아시아의 경우도 50~60%가 그렇다고 하듯이 아직도 여성은 식량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농림수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5%가 넘으며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생산자로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생산활동에서 청정생산으로의 기업활동의 변화는 물론 기업의 환경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는 1985년에 개최되었던 UN세계여성회의의 결과인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92년 리우회담의 결과인 「의제21」 중 24장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향한 세계여성의 행동 강령’, 그리고 리우회담 비정부기구 포럼의 협약 중 ‘공정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여성협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구체적 조항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에서 번역 수록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이로비 미래전략에서는 이때까지 여성을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환경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보는 시

각에서 탈피하여 기여자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강조하며 정부나 유엔기구들이 환경보전에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여 환경과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의제21」 역시 환경침해의 통제와 환경 및 개발 부문의 정책결정, 기획, 기술자문에서 여성비율을 높일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도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동향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여성환경전문가의 양성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역시 국제적 변화에 맞추어 국내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인류공동체 초기부터 식량채집을 통하여 농업의 원리를 발견한 이래 식량과 식수, 연료를 생산 또는 수집·관리해 오면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터득한 자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혜와 기술, 그리고 출산기능을 통하여 획득하는 자연 또는 생명과의 특수한 교감능력을 바탕으로 여성은 오늘의 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인간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 남용해 온 결과이며 여성이야말로 지배와 경쟁, 파괴가 만연하는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